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죽음 이해와 교육적 함의

문선영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s Understanding of Death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Moon, Sunyoung

Sun Moo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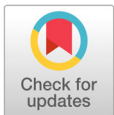
tcmsy@hanmail.net

Abstract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how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a new Christian religion, understands death and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in its understanding of death. Since the preceding studies do not deal with the aspect of the change of the independent term by which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refers to death, their contents are restrictive and limited.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of the change of the term for death in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too to discuss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considers the death of the physical self man encounters the inevitable Providence of the One and Only God. It believes that man consists of the physical self and the spirit self and was created to live forever as the object of the love of the One and Only God as the spirit self in the spiritual world after the death of the physical self. The man's living on this land with the physical self is also ultimately a process of preparing for eternal life after the death of the physical self through the growth of the spirit self on the ground of the physical self. Thus,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does not understand the death of the physical self as something to be feared or sad for. Also, since the death of the physical self is interpreted not as the price of sin, it neither emphasizes the rebirth of the physical self nor mentions the necessity of it.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has expressed death as 'Seunghwa' but currently refers to death as 'Seonghwa.' Seunghwa was a term referring to death, which emphasized the dimension of the migration of the spirit self as told by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n other words, it had educational implications that would make people aware of another world after death and overcome the fear and sorrow of death. Death as Seonghwa has an educational significance that emphasizes the completion of life as a believer who realized religious ideals. The expression of death as Seonghwa on the other hand provides the opportunities for the reflection and awakening of how one has lived as a believer, compared to Seunghwa. In other words, death reconceptualized as Seonghwa suggests how death should be recognized in the life of a believer of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by maximizing the meaning of death as the completion of life.



OPEN ACCESS

KJRE. 2020 December, 64(1): 55-71

DOI: <https://doi.org/10.12972/kjre.20200018>

Received: November 29, 2020

Revised: December 20, 2020

Accepted: December 28, 2020

Copyright: © 2020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ey Words: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Death, Education, Spirit Self, Seonghwa

I. 시작하며

모든 인간의 삶은 본래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죽음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다소 당혹스러울 수도 있으나 “모든 죽음은 이미 예고된 것”¹⁾이다. 그런데 정작 인간은 탄생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궁극적으로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대체로 망각한 채 살아가게 된다. 삶과 죽음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서로 마주하므로, 살아있음을 의식하고 있는 인간은 죽음 또한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즉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²⁾는 말은 이러한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불가피한 죽음은 보편적으로 불안, 공포, 두려움 등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지니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죽음’이란 주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으로 수용하려는 교육적 노력이 ‘죽음교육’ 또는 ‘죽음준비교육’ 등 다양하게 불리면서, 국내에서도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주목받으며 전개되고 있다.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교육은 그 교육의 대상과 내용의 범주 등에 있어서 획일화될 수는 없으나, 죽음을 마주하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케 하는 목적을 지닌다고 이해된다.⁴⁾

종교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죽음 이해에 관한 가장 풍부한 담론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강력한 문화의 실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에서 종교의 죽음 이해가 다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⁵⁾ 종교를 통해 본 죽음은 죽음 이후 명확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상정되고, 이와 연관되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에 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혀 나가게 한다. 종교는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며 나름의 교리, 의례 등을 통하여 인간의 죽음을 직시하고 일깨우는 죽음에 관한 교육을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⁶⁾ 따라서 종교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죽음에 관한 가르침을 통하여 인간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성찰케 하는 교육적 측면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를 통하여 인간의 불가피한 죽음에 관한 이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기독교, 불교와 달리 죽음과 관련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국내 다양한 신종교 가운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⁷⁾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죽음을 일컫는 독자적인 용어를 지니며, 창시자 문선명(文鮮明, 1920-2012) 사후 그의 죽음을 축제적 차원으로 추모하는 신앙공동체의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죽음 이해의 새로운 측면이 엿보인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⁸⁾

죽음이란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⁹⁾ 기존의 연구는 현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죽음을 일컫는 용어와 그 용어 변화의 내용이 심도 있게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화의 역동성을 지닌 신종교로서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죽음 이해에 관한 내용이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다고 파악된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앙공동체의 죽음 이해에 관한 연구 내용에 있어서 죽음을 일컫는 신앙적 용어의 변화 과정뿐만 아니라 그 교육적 함의를 아울러 고찰함으로써, 기존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인간 이해에 기초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죽음 이해

1. 인간의 이중적 구조와 두 세계

1) 유일신(唯一神)의 인간 창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유일신 신앙을 기반으로 신적 존재가 왜 인간을 창조하였는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이유를 신앙적으로 구체화한다. 참사랑의 근원이 되는 유일신이 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였으며, 유일신과 인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영원한 참사랑의 관계를 실현”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한다.¹⁰ 일반적으로 사랑은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상호 관계를 통한 지속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유일신의 본질적 속성은 충만한 사랑을 지닌 부모와 같은 인격신의 차원으로 이해됨으로써, 신적 존재가 인간을 사랑의 대상인 자녀로서 창조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창조의 동기가 설명되고 있다.¹¹ 이러한 유일신에 의한 인간 창조의 동기는 마치 부모가 사랑의 대상인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에 비유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자녀로 창조된 인간이 부모의 위상을 지닌 유일신을 중심으로 참사랑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그 관계가 확대되어 인류 대가족, 인류 한 가족이라는 종교적 이상세계의 실현을 지향해 나가는 신앙공동체의 신념을 지니고 있다.¹² 유일신에 근원을 둔 참사랑은 개인의 이기적인 사랑과 구별되며, “위함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위해 주는 사랑”, “주고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 “기쁨으로 주는 사랑”, “공익성을 띤 무형의 질서요 평화요 행복의 근원”으로 묘사되고 있다.¹³ 인간이 가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은 이러한 참사랑의 본질이 담긴 실례로 언급되기도 한다.¹⁴

참사랑이 실현된 그 이상세계는 무엇보다 유일신에 의하여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세계가 아니며, 인간의 실천적 노력과 책임을 통하여 지상, 현세에서 실현되어 나가야 하는 세계로 이해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이 담긴 그 이상세계의 삶은 기본적으로 구약성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성구를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이 성구의 내용을 ‘3대 축복(三大祝福)’으로 해석하며 인간이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가르친다.

3대 축복이라 불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3가지 축복은 ‘개성의 완성’, ‘가정의 완성’, ‘주관성의 완성’을 이루는 삶으로 축약된다. 첫째, 개성의 완성이란 유일신을 중심으로 인간이 지닌 마음과 몸이 갈등 없이 선을 지향하며 범죄를 행하지 않는 성숙한 도덕적 인격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둘째, 가정의 완성이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된 인간이 부모가 되어 자녀와 함께 유일신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셋째, 주관성의 완성은 인간이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며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⁵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추구하는 종교적 이상세계는 기본적으로 인격을 갖춘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가정이 전제되고 있다. 유일신의 참사랑은 가정에서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통해서 구체화되므로, 이상적 가정이 이상적 세계의 기본 단위가 된다고 본다. 이러한 가정의 기반을 통해서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그 참사랑이 확대되어 이상세계를 지상에 실현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¹⁶

모든 인간은 생명이 주어진 결과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 누구도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이 지닌 근원에 관한 궁극적 물음에 나름의 답을 제시해 왔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사랑으로 충만한 유일신과 그의 필연적인 인간 창조의 동기,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신앙공동체가 추구해 나갈 신앙인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일신과 인간의 관계 인식은 더 나아가 인간 존재의 구조적 이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영역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2) 인간의 영인체(靈人體)와 천주(天宙)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유일신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관계는 지상 세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영원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참사랑의 실현의 연계적이며 지속적인 세계를 신앙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일신이 영원히 존재하듯이 그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 또한 영원성을 갖도록 창조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⁷ 이러한 점은 인간의 이중적 존재 구조와 육신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1) 영적 자아로서의 영인체

인간은 일반적으로 마음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이해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이러한 마음과 몸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지만,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지닌 영적 존재로서의 측면을 영인체라는 독자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영적인 마음과 몸의 측면이 내재된 인간의 마음과 몸에 관한 신앙적인 재해석의 경향을 보인다. 즉 인간은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 유일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영적 자아(Spirit Self)¹⁸가 있다는 점을 가르친다. 보편적으로 종교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영혼과 유체이탈을 통한 임사 체험자들이 경험한 영혼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영인체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고 본다.¹⁹

유일신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은 구조적 측면에서 ‘육신과 영인체를 지닌 이중적 존재’로 설명된다. 이때 영인체는 생리적인 오관과는 구별된 영적인 오관, 영감(靈感)으로만 감득되며, 유일신과 직접 통할 수 있는 영존성(永存性)을 지닌 실존체로서 창조되었다고 한다.²⁰ 영인체라는 개념은 영혼이란 용어에 비하여 자신의 영적인 인격적 측면이 부각되는 특성이 있으며, “신령의 감응체”²¹라고도 언급됨으로써 인간이 신성적 또는 영적인 요소에 감응하게 되는 부분으로 설명된다. 인간이 지닌 종교성은 바로 영인체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인간의 육신은 육신의 마음인 육심(肉心)과 육신의 몸인 육체(肉體)로 구별되며, 영인체는 영인체의 마음인 생심(生心)과 영인체의 몸인 영체(靈體)로 구별된다.²²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은 육신의 마음인 ‘육심’과 영인체의 마음인 ‘생심’이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 육심은 “육체로 하여금 그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을 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작용”의 부분으로 동물에 있어서 본능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²³ 이에 비하여 생심은 인간이 유일신을 비롯한 영적 요소를 경험하게 되는 영인체의 중심적인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다.²⁴ 영인체의 마음인 생심은 동물과 구별된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을 지향해 나가도록 이끄는 양심(良心)의 차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인간의 육신이 지닌 육심은 의·식·주·성(性)의 생활을 추구하며, 영인체가 지닌 생심은 진·선·미·애(愛)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구별된다.²⁵ 이와 같은 인간의 마음은 육심과 생심이 서로 연속되어지므로 영인체의 마음인 생심으로 육신의 마음인 육심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²⁶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인간을 이중적 존재로서 그 구조적 차원을 말하고 있으나, 육신 자체를 악(惡)의 요소로서 거부하는 태도를 지니지는 않는다.²⁷ 오히려 육신과 영인체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지상에서 육신을 지닌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생장(生長)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의 선화(善化)와 악화(惡化)가 결정되므로 자신의 영인체를 육신을 지닌 지상 생활 속에서 선한 삶을 통하여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²⁸

육신을 지니며 지상에서 생활하는 것은 결국 영인체의 성장을 통하여 육신의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인간은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육신을 터로 하여 영인체가 참사랑으로 성장한다는 점이 강조된다.²⁹ 즉 인간은 물질적인 영양소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선한 삶을 통하여 자신의 영인체가 성장하며 궁극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마치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한다.³⁰ 이는 인간의 육신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사랑을 통한 선행으로 영적 자아의 종교적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인간이 살아가는 두 세계로서의 천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유일신의 창조 섭리에 따라 인간의 육신이 노쇠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참사랑으로 성장하여 완성된 영인체가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고 본다. 인간 삶의 현세와 내세를 연속선상에서 인식함으로써 삶의 연속성을 말한다. 지상 세계는 유형(有形)실체세계, 유형세계, 육계(肉界)라고도 하며, 천상 세계는 무형(無形)실체세계, 무형세계, 영계(靈界)라고도 일컬어진다.³¹ 다양하게 불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인체가 육신을 벗고 살아가게 되는 영적 차원의 세계로 이해되기 때문에 주로 영계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삶과 죽음에서 인식되고 있는 천주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독자적인 용어로서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 지상과 천상의 두 세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천주에서 한자 주(宙)는 문자적으로 집을 의미한다. 지상과 천상 두 세계는 부모로서의 유일신과 자녀로서의 인간이 참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생활하는 가정의 공간적 이미지를 담아 비유된 것으로 이해된다. 천주는 유일신과 모든 인간이 대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생활하는 세계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타락하지 않은 창조 본연의 인간은 두 세계의 매개체이며 화동(和動, harmony)의 중심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상에서 영적 세계 곧 영계와 통할 수 있다고 신앙한다.³²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종교적 이상세계를 천주평화통일국(天宙平和統一國), 약칭하여 천일국(天一國)이라고 부른다.³³ 천주라는 용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천주평화통일국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추구하는 이상세계가 궁극적으로 지상 세계와 천상 세계에 모두 실현되어 어우러진 세계임을 함의한다. 즉 두 세계가 궁극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이자, 이상적인 세계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앙인들은 이러한 개념을 통하여 인간의 삶이 지상의 현세와 천상의 내세로 연계되어 지속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상세계의 인류 한 가족은 “천주대가족”³⁴으로도 표현됨으로써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들과도 근원적으로 영원한 관계성을 맺고 있으며,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2. 부활(復活)의 의미로 본 죽음

구약성서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하며, 만약 인간이 이를 지키지 않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성구는 인간의 죽음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초래된 죄의 대가처럼 문자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신약성서에서 발견되는 초기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지닌 부활에 관한 신앙은 죄의 대가였던 육신의 죽음이 극복되는 육신의 부활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다양한 성서 해석은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설명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³⁵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통하여 성서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재조명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종단의 기본 교리서에 해당되는 『원리강론』의 제5장 부활론에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인간의 영혼에 해당되는 영인체가 육신의 죽음 이후 영계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초래된 것으로 이해되는 죽음을 육신의 죽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신의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창조되었으므로, 분해되어버린 육신이 원상태로 될 수 없다고 보며, 영계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영인체가 다시 육신을 쓸 필요도 없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³⁶ 즉 육신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며, 죄의 대가가 아니라고 해석하므로 육신의 부활을 강조하거나 그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죄의 대가처럼 이해되는 그 죽음은 어떠한 죽음을 말하는가?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초래된 죽음은 “사탄주관권 내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³⁷이라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내에서 그의 뜻대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³⁸라고 한다.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인체가 영계의 천상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내에 있다면 그는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사람인 것”³⁹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삶과 죽음에 관한 신앙적 해석은 누가복음 9장 60절에 언급된 예수의 답변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특별히 이 성구에서 죽음을 이해하는 예수의 새로운 관점이 발견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예수는 부친의 장사(葬事)를 지내기 위해 자신의 집에 가려고 하는 자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였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그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였다. 예수가 이해하는 죽음은 예시된 성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종교적인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지상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죽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수의 종교적 관점에서 이해된 죽음을 설명한다.⁴⁰ 결국 부활은 사탄주관권 내에 떨어진 입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직접주관권내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며,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선(善)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활한 것이 된다.”⁴¹고 설명한다. 따라서 육신의 죽음은 두려워하거나 슬픈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죄의 대가가 아니며, 오히려 신앙인의 삶이 선을 지향하며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활의 의미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다.

III. 죽음의 재개념화에 나타난 교육적 함의

1. 승화(昇華)에서 성화(聖和)로서의 죽음

종교는 신앙적 의미를 지닌 나름의 용어로 죽음을 일컫기도 한다. 필자는 신앙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현상을 ‘죽음의 재개념화’라고 이해한다. 신앙공동체에서 죽음을 일컫는 용어는 그 종교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시사하며, 더 나아가 신앙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교육적 함의가 내포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국내 기독교를 보면, 한국 가톨릭에서는 죽음을 선종(善終)이라고 칭한다. 선종은 한국 가톨릭 초창기부터 애용된 죽음을 일컫는 용어이다. 원래는 “선생복종(善生福終), 즉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끝마치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가톨릭 신앙인에게 “착한 죽음, 거룩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⁴² 즉 선종은 가톨릭 신앙인이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여야 하는지를 교육적으로 함의하며, 이를 엿볼 수 있게 한다고 해석된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죽음을 소천(召天)이라고 칭한다. 유일신인 하나님이 부르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⁴³ 즉 소천은 개신교 신앙인이 생명의 근원을 유일신으로 이해하며, 생명을 부여한 그의 부름에 순응하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신앙인의 태도에 관한 교육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승화’로서 죽음을 표현해 왔으나 현재는 ‘성화’로서 죽음을 일컫는다. 즉 승화에서 성화로 죽음의 재개념화에 변화가 있었다. 1954년 5월 종단 창립 초기부터 죽음을 일컫는 별도의 용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승화라는 용어는 1984년 1월 유일신의 섭리를 위한 희생적 죽음으로 고백되는 창시자의 젊은 아들의 장례식이 승화식(昇華式)으로 불리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⁴⁴ 그 후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인간의 죽음을 신앙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승화라고 불려왔으며, 죽음과 관련된 장례식을 승화식으로 일컬어 왔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신의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유일신의 인간 창조에 의한 필연적인 섭리로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슬퍼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 왔다. 따라서 인간이 지상 세계에서 자신의 영적인 자아, 곧 영인체를 사랑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생활하다가 노쇠한 후에 육신을 벗고 영인체만이 영존성을 지니며 천상 세계에서 영원히 생활한다는 점을 신앙하여 왔다. 성숙한 신앙인은 “오히려 육신을 벗고 그 세계로 갈 수 있는 날을 그리워하며 고대하게 될 것”으로 불가피한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 태도를 표현하기도 하였다.⁴⁵

창시자는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1964년 8월 갓 태어난 딸이 며칠 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평범치 않은 남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⁴⁶ 그는 점차 신앙공동체의 규모가 적극적인 해외 선교 활동으로 커지면서 신앙적 차원에서 감당해 나가야 했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일반적인 슬픔, 고통의 이미지를 교육적 측면에서 극복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신앙인의 삶 가운데 죽음을 보다 고양되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유추된다.

승화로서의 죽음은 신앙인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보다 격상된 차원으로 재인식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다. 죽음을 뜻하는 승화는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신앙인에게 육신의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비약”이라는 점이 강조된 용어로 사용되었다.⁴⁷ 승화는 “차원이 낮은 세계에서 차원 높은 세계”로 이동하는 것, “거룩히 비상천(飛上天)한다는 것”,⁴⁸ “거룩히 승천한다는 것”의 의미로 죽음을 내면화하는 교육적 의미가 있었다고 이해된다.⁴⁹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육신의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죽은 자의 영인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은 오히려 죽은 자가 영적 세계로 가는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승화식은 기쁨으로 죽은 자의 영인체를 전송해 주어야 하는 의식이라고 이해하였다. 즉 인간이 육신을 지닌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상의 세계 곧 영계로 가는 승화로서의 죽음은 결코 슬퍼할 불행이나 불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교육해 나왔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승화식은 “더 좋은 세계로 옮겨주기 위한 절차”⁵⁰로 인식되어 시각적으로 밝은 분위기로 죽음에 대한 슬픔과 어두운 이미지를 극복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영정 사진의 리본은 검은색 대신 흰색 등 밝은색으로 두르고, 남성의 넥타이는 어두운 검은색이 아닌 흰색으로, 여성은 흰색과 같은 밝은색 의상을 입어 왔다. 또한 죽은 자를 위한 화환은 슬픔이 아닌 축하의 뜻을 지닌 다채로운 색으로 장식되어 기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⁵¹

죽음이 공포, 고통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각되면 인간은 죽음에 대하여 회피하려는 반응을 보이지만, 안정된 삶의 마무리, 다른 출발과 같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로서 수용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부각되면 이를 회피하지 않고 삶을 성찰하게 되는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실험이 있다.⁵² 이런 점에서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승화식은 신앙공동체의 구성원이 죽음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죽음을 일컫는 승화라는 용어는 2011년 11월 종단의 초창기부터 해외 선교 활동에 주력하며 일생을 살아오다 97세에 죽음을 맞이한 신앙공동체의 원로인 김상철의 승화식이 창시자의 뜻에 따라 성화식(聖和式)으로 변경됨으로써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⁵³ 이를 기점으로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에서 성화가 죽음을 일컫는 용어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죽음을 일컫는 용어가 승화에서 성화로 변경되었으나, 죽음과 관련된 의례의 변화가 특별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존 승화식은 성화식으로 명칭만 변경된 채 동일하게 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김상철은 종단 창립 당시부터 창시자와 함께한 인물로서 1954년 8월 UN의 후진국가 개발원조 프로그램의 정부 대표 3인으로 선발되어, 그 당시 영국에서 진행된 사회정책과 후생에 관한 연구와 함께 개인적인 시간에 영국 선교 활동을 추진하였다고 한다.⁵⁴ 그는 귀국 후 1959년 9월 본격적으로 미국 선교 활동에 주력하였으며, 1975년 9월 미국에서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교수들을 초빙하여 초종교적으로 운영된 대학원 과정 교육기관의 초대 총장을 역임하며, 해외에서 주로 국제적인 활동을 해 나온 인물로 종단 내에 알려져 있다. 그의 활동은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초창기 해외 선교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공헌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2.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완성, 완성된 삶의 결실

창시자 문선명은 그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에서 열두 살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그의 증조할아버지 묘 이장 과정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때 양상한 뱃조각을 목격하게 된 후 충격도 받았으며, 그 후 삶과 죽음에 관하여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한다.⁵⁵ 그는 열여섯 살 무렵 다섯 명의 동생을 잃게 되는 가정의 아픔 또한 겪었으며, 동갑인 중학생의 자살에 관한 신문 기사를 접함으로써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⁵⁶

이러한 경험은 그가 종교에 매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의문은 당시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기도에도 몰두하였다고 한다. 그는 그 과정에서 예수를 통하여 특별한 사명을 맡게 되는 종교적 경험을 하였다.⁵⁷ 이처럼 인간의 죽음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물음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청소년기부터 고민해 왔던 인간의 죽음을 최종적으로 성화(聖和)라고 일컬었다. 승화에서 성화로 용어를 변경한 다음 해인 2012년 9월 그는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가 명확하게 성화(聖和)의 뜻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거룩할 성(聖)자며, 올라가는 승(昇)자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상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맺어 알곡을 품고 환희와 승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때가 영계 입문의 순간”⁵⁸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승화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말하는 영인체가 영계로 이동하는 차원이 강조된 죽음을 일컫는 용어였다. 즉 죽음 이후 또 다른 세계의 삶이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극복하게 하는 교육적 함의가 있었다.

그렇다면 창시자가 승화와 구별하고자 한 성화(聖和)로서의 죽음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어떤 교육적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죽음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는 성화(聖和)는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성화(聖化)와 한자 표기가 다르다. 성화(聖化)는 기독교 신앙에서 성화의 개념, 성화의 과정, 성화의 시기 등 교단마다 다소 이해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⁵⁹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의 성화(聖化)는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인의 죄와 무관한 인간의 거룩한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죽음을 일컫는 성화(聖和)는 승화와 달리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왔던 새로운 용어이며, 상징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이를 파악하는 것은 수월하지 않다. 그러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성화(聖和)가 기독교의 죄를 벗어난 성(聖)을 지향하는 성화(聖化)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계 신종교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한 기독교가 말하는 죄와 무관한 인간 삶의 거룩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시자는 그의 육신이 노쇠해지는 것을 느끼며, 언젠가 그가 직면할 죽음을 준비하며 생활해 왔을 것이다. 그는 특별한 사명을 의식하며 살아 온 남다른 인생을 마무리해 나갈 시점에 접어들면서, 죽음이 차원 높은 세계로의 이동, 거룩한 비상천, 승천 등의 의미로 인식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의미를 보다 충분하게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즉 그는 자신이 겪을 죽음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본다.

흥미롭게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는 한자 표기가 다른 성화(成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종단 창립 초창기부터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성화(成和)에서 “성(成)은 완성(完成)을 의미하고 화(和)는 화동(和動)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로 화(和)해서 완성해 간다는 뜻”⁶⁰이라고 한다. 즉 성화(成和)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추구하는 종교적 이상을 완성해 나가는 삶이 함의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 용어는 종단 초창기 신앙공동체의 젊은이들, 곧 학생, 청년에게 부여되어, 이들은 성화학생, 성화청년으로 불리게 되었다. 따라서 성화(成和)라는 용어는 종교적 이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였다고 파악된다.⁶¹ 현재 성화(成和)는 신앙공동체의 어린이에게도 적용되어 성화어린이, 성화학생으로 종단 내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칭할 때 사용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신앙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신앙인의 ‘삶’과 ‘죽음’은 ‘성화(成和)로서의 삶’과 ‘성화(聖和)로서의 죽음’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결국 성화(聖和)로서의 죽음은 종교적 이상을 실현한 신앙인으로서 삶의 완성이 강조되는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고 이해된다. 죽음이 성화(聖和)로 표현되는 것은 승화에 비하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성찰과 각성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성화(聖和)로서의 죽음은 종교적 이상을 이루기 위한 신앙인으로서의 완성된 삶의 결실이 강조되는 차원이 있다. 성화(聖和)는 승화보다 완성된 삶, 삶의 완성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창시자가 말하는 사후세계는 “완성하여 들어가 살 영생의 세계”이다.⁶² 따라서 현세의 삶을 통하여 종교적 이상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삶이 강조되고 있다. 그곳에 들어가면 평생 자신의 살아온 삶이 어떠한지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도록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⁶³ 영계는 “사랑을 호흡하고 사랑을 중심삼고 사는 세계”이므로, “완전한 참사랑의 인격을 구비해야” 된다고 한다.⁶⁴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맞이하는 죽음은 그의 상징적 표현에 담긴 내용처럼 “지상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맺어 알곡을 품고 환희와 승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성화(聖和)로서의 죽음은 바로 창시자의 종교적 이상 실현을 위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 담겨있다고 본다. 그에게는 종단 창립부터 함께하며 해외 선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 온 신앙인 김상철의 죽음이 종교적 이상 실현을 위해 살아 온 완성된 삶의 결실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죽음에 관한 교육에서 중요한 목표는 “죽음이 삶의 완성, 삶의 최고봉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⁶⁵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성화(聖和)로서의 죽음은 신앙공동체 구성원이 죽음을 통하여 신앙인의 삶의 완성, 신앙인의 삶의 최고봉이 되도록 일깨워주는 교육적 함의가 있다. 성화(聖和)로서의 죽음은 죽음의 의미를 삶의 완성이로 극대화함으로써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신앙인의 삶 속에서 죽음이 어떻게 인식되어 나가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IV. 끝맺으며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삶을 이해하는 것이다. 종교를 통해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종교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필자는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을 통해서 죽음을 마주하였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기독교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독자적인 성서 해석과 다양한 용어를 통하여 삶과 죽음에 관한 신앙을 담아내고 있다. 고백적인 신앙의 언어를 합리적인 이성의 언어로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으며 수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창시자의 삶과 죽음에 관한 종교인으로서의 고뇌와 성찰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보편적으로 종교는 죽음을 통하여 삶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거울을 제공하고 있다. 죽음이 삶의 거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 거울 속에 비추어진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지 않도록 부단히 선한 삶을 지향하며 실천해 나가도록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참사랑과 양심으로 강조되는 선한 삶을 지향함으로써 그 삶의 완성, 결실을 성숙한 신앙인의 죽음으로 이해하며 기쁨과 축하의 의례로 일깨우려 한다. 바로 이 부분이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창시자가 독자적인 용어로 죽음을 표현하며 죽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교육의 본질적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생애주기별로 구분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죽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성인들은 주로 다양한 교리서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창시자의 성화(聖和)로서의 죽음을 매년 기쁘게 추모함으로써 죽음에 관한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된다.

끝으로 필자는 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신앙공동체에서 한자를 달리한 두 가지 성화의 개념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화(聖和)로서의 죽음을 신앙공동체의 교육적 차원에서 보다 의미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구분된 ‘성화(成和)’와 ‘성화(聖和)’의 개념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성화어린이, 성화학생의 한글 표기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요약

본 논문은 기독교계 신종교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 죽음 이해에 나타난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 연구는 현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죽음을 일컫는 독자적인 용어 변화의 측면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죽음을 칭하는 용어 변화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교육적 함의를 아울러 고찰해 본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인간이 맞이하는 육신의 죽음을 필연적인 유일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靈人體)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인체가 육신의 죽음 이후 영계(靈界)에서 유일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고 신앙한다. 인간이 육신을 지니며 지상에서 생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육신을 터로 하여 영인체가 성장함으로써, 육신의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해야 할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또한 육신의 죽음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고 해석하므로 육신의 부활을 강조하거나 그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승화(昇華)’로서 죽음을 표현해 왔으나, 현재는 ‘성화(聖和)’로서 죽음을 일컫는다. 승화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말하는 영인체가 영계로 이동하는 차원이 강조된 죽음을 일컫는 용어였다. 즉 죽음 이후 또 다른 세계의 삶이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극복하게 하는 교육적 함의가 있었다. 성화로서의 죽음은 종교적 이상을 실현한 신앙인으로서 삶의 완성이 강조되는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죽음이 성화로 표현되는 것은 승화에 비하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성찰과 각성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측면이 있다. 즉 성화로서 재개념화된 죽음은 죽음의 의미를 삶의 완성이로 극대화함으로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앙인의 삶 속에서 죽음이 어떻게 인식되어 나가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주제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죽음, 교육, 영인체, 성화

참고문헌

- 가스펠서브 편,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회, 『지혜로운 삶을 위한 웰다잉』, 서울: 구름서재, 2016.
-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회, 『무엇이 웰다잉의 삶인가?』, 서울: 구름서재, 2019.
- 기독교새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새사전』 제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0.

- 길영환, 「통일교회의 죽음의 이해와 승화(昇華)식」, 『신종교연구』 제7집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02)
- 김경재,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 파주: 도서출판 청년사, 2015.
- 김균진, 『죽음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김미영,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 서울: 민속원, 2010.
- 김재영, 『종교심리학의 이해: 죽음인식의 논의를 중심으로』, 파주: 집문당, 2017.
- 마이클 셔머, *Heaven on Earth*, 김성훈 옮김, 『천국의 발명』, 파주: 아르테, 2019.
- 마이클 헵, *Let's Talk about Death over Dinner*, 박정은 옮김,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탁에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대화로 이끄는 22가지 질문』, 서울: 을유문화사, 2019.
- 멜빈 디이터 외, *Five Views on Sanctification*, 김원주 옮김, 『성화에 대한 다섯가지 견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2.
-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파주: 김영사, 2009.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8권, 서울: 성화출판사, 1985.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139권, 서울: 성화출판사, 1991.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196권, 서울: 성화출판사, 1993.
- 박충구, 『인간의 마지막 권리』, 파주: 도서출판 동녘, 2019.
- 배영기, 『죽음에 대한 문화적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지상생활과 영계(上), (下)』, 서울: 성화출판사, 1997.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역사편찬위원회 편, 『증언: 신앙수기 제3집』, 서울: 성화사, 1986.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성화학생의 길』, 서울: 성화출판사, 1998.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2001.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영계와 참된 인생길』, 서울: 성화출판사, 2004.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 증보판, 서울: 성화출판사, 2013.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화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3.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부모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5.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사편찬위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예법과 의례: 전통』, 서울: 성화출판사, 1997.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사편찬위원회, 『통일교회 실록』, 서울: 성화출판사, 2007.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사편찬위원회, 『참부모님 생애와 섭리 2』, 서울: 성화출판사, 2009.
- 셀리 케이건, *Death*, 박세연 옮김,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웅진씽크빅, 2012.

- 안양규, 『불교의 생사관과 죽음 교육』,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15.
- 알폰스 디켄, 生と死の教育, 전성곤 역, 『인문학으로서의 죽음교육』, 고양: 인간사랑, 2008.
- 앨리스 K. 터너, *The History of Hell*, 이찬수 옮김, 『지옥의 역사 I, II』, 서울: 도서출판 동연, 1998.
- 양편승, 「통일교의 생사관과 죽음의례」, 『신종교연구』 제23집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10)
- 어니스트 베커, *The Denial of Death*, 노승영 옮김, 『죽음의 부정』, 서울: 한빛비즈, 2019.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On Life After Death*, 최준식 옮김, 『사후생』, 서울: 대화출판사, 2002.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On Death and Dying*, 이진 옮김, 『죽음과 죽어감』, 서울: 청미출판사, 2018.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Questions and Answers on Death and Dying*, 안진희 옮김, 『죽음과 죽어감에 답하다』, 서울: 청미출판사, 2018.
- 오규영, 「생명윤리와 통일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45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 오진탁, 『자살예방 해법은 있다』, 파주: 교보문고, 2013.
- 우정, 『죽음의 인문학적 이해』, 서울: 이지출판, 2018.
- 이나미, 『다음 인간』, 서울: 시공사, 2014.
- 이병찬 · 이철영 · 최청자, 『죽음준비교육과 삶』, 서울: 효사랑복지재단, 2007.
- 이븐 알렉산더, *Proof of Heaven*, 고미라 옮김, 『나는 천국을 보았다』, 파주: 김영사, 2013.
- 이븐 알렉산더 · 프톨레미 톰킨스, *The Map of Heaven*, 이진 옮김,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 파주: 김영사, 2016.
- EBS 〈데스〉 제작팀, 『죽음』, 서울: 책담(한솔수북), 2014.
- 이영선 · 장환영, 「죽음교육 연구동향 분석: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문화연구』 제26권 제2호 (인천: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 이은봉, 『여러 종교에서 보는 죽음관』,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5.
- 이이정, 『죽음학 총론』, 서울: 학지사, 2011.
- 장경철 · 강진구, 『죽음과 종교』, 서울: 두란노, 2014.
- 정재걸, 『삶의 완성을 위한 죽음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
- 제인 호프, *The Secret Language of the Soul*, 유기천 옮김, 『영혼의 비밀』, 서울: 문학동네, 2002.
- 조계화 · 이윤주 · 이현지, 『죽음학 서설』, 서울: 학지사, 2006.
- 조원규, 『웰다잉의 이해와 실천』 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책과나무, 2018.
- 조현, 『의미있는 삶을 위한 죽음학』, 서울: 계축문화사, 2018.
- 존 바우커, *The Meanings of Death*, 박규태 · 유기쁨 옮김, 『세계종교로 보는 죽음의 의미』, 파주: 도서출판 청년사, 2007.

- 찰스 A. 코르 · 도나 M. 코르, *Death and Dying, Life and Living 7th Edition*,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옮김, 『현대 생사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박문사, 2018.
- 최준식, 『죽음의 미래』, 서울: 소나무, 2011.
- 콜린 맥다넬 · 베른하르트 랑, *Heaven: A History*, 고진옥 옮김, 『천국의 역사 I, II』, 서울: 도서출판 동연, 1998.
- 크리스틴 룡가커, *Facing Death and Finding Hope*, 조원현 역, 『죽음 앞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4.
- 통일세계 편집실, 「뉴스 포커스: 1호 성화식(聖和式)의 축복 속에 하늘 길을 개척한 김상철 총장」, 『통일세계』 통권 486호 (서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2011)
- 피터 존스, *Memento Mori: What the Romans can tell us about Old Age and Death*, 홍정인 옮김, 『메멘토 모리: 나이듦과 죽음에 관한 로마인의 지혜』, 파주: 교유서가(교유당), 2019.
-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편, 『한국가톨릭대사전』,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 한국종교학회 편, 『죽음이란 무엇인가』 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창, 2009.
- 한국죽음학회,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출판사, 2010.

Endnote

- 1 장경철 · 강진구, 『죽음과 종교』 (서울: 두란노, 2014), 17쪽.
- 2 피터 존스, *Memento Mori: What the Romans can tell us about Old Age and Death*, 홍정인 옮김, 『메멘토 모리: 나이듦과 죽음에 관한 로마인의 지혜』 (파주: 교유서가(교유당), 2019), 11쪽.
- 3 우정, 『죽음의 인문학적 이해』 (서울: 이지출판, 2018), 62-67쪽; 어니스트 베커, *The Denial of Death*, 노승영 옮김, 『죽음의 부정』 (서울: 한빛비즈, 2019), 20쪽.
- 4 죽음교육 또는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의와 목적은 다음을 참조. 정재걸, 『삶의 완성을 위한 죽음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 10-35쪽; 한국죽음학회,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출판사, 2010), 48-49쪽; 이이정, 『죽음학 총론』 (서울: 학지사, 2011), 501-503쪽; 조현, 『의미있는 삶을 위한 죽음학』 (서울: 계축문화사, 2018), 36-43쪽; 조원규, 『웰다잉의 이해와 실천』 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책과나무, 2018), 357-362쪽; 찰스 A. 코르 · 도나 M. 코르, *Death and Dying, Life and Living 7th Edition*,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옮김, 『현대 생사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박문사, 2018), 4-17쪽.
- 5 조계화 · 이윤주 · 이현지, 『죽음학 서설』 (서울: 학지사, 2006), 55-75쪽; 이병찬 · 이철영 · 최창자, 『죽음준비교육과 삶』 (서울: 효사랑복지재단, 2007), 32-37쪽; 이이정, 앞의 책, 443-471쪽; 배영기, 『죽음에 대한 문화적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149-255쪽.
- 6 이은봉, 『여러 종교에서 보는 죽음관』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5); 김균진, 『죽음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존 바우커, *The Meanings of Death*, 박규태 · 유기쁨 옮김, 『세계종교로 보는 죽음의 의미』 (파주: 도서출판 청년사, 2007); 한국종교학회 편, 『죽음이란 무엇인가』 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창, 2009); 김경재,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 (파주: 도서출판 청년사, 2015); 안양규, 『불교의 생사관과 죽음 교육』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15) 참조.
- 7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1954년 5월 1일 당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Holy Spirit Association for the Unification of World Christianity)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의 종단 명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신앙공동체 성향을 지니기 때문에 기독교계 신종교로 이해되고 있다. 통일교회 또는 통일교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1997년 4월 10일 변경된 종단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왔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참부모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5), 1348쪽 참조. 2020년 5월 8일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하늘부모님성회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으로 기존 종단 명칭에 하늘부모님성회(Heavenly Parent's Holy Community)를 추가하였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으로 종단의 명칭을 칭하고자 한다.
- 8 〈문선명 총재 성화 7주년 기념 축제 성향〉, 《세계일보》, 2019년 8월 19일자, 제1면.
- 9 국내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2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길영환, 「통일교회의 죽음의 이해와 승화(昇華)식」, 『신종교연구』 제7집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02), 146-162쪽; 양편승, 「통일교의 생사관과 죽음의례」, 『신종교연구』 제23집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10), 91-114쪽.
- 10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천성경』 증보판 (서울: 성화출판사, 2013), 390쪽.
- 11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4), 58-61쪽.
- 12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2001), 13쪽;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천성경』 증보판, 262쪽 참조.
- 13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평화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3), 1574쪽.
- 14 같은 책.

- 15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44-49쪽 참조.
- 1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 증보판, 1439쪽.
- 17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114쪽.
- 18 영인체는 영어로 “Spirit Self”로 번역된다. The Holy Spirit Association for the Unification of World Christianity, *Exposition of the Divine Principle* (Seoul: Sung Hwa Publishing Co., LTD, 2000), p. 47.
- 19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는 주목받았던 임사 체험자로서 유명하다. 그는 저서와 비영리 자선단체인 이터니아(Eternea)의 설립을 통하여 영혼의 실존, 사후세계를 알리고 있다. 이븐 알렉산더, *Proof of Heaven*, 고미라 옮김, 『나는 천국을 보았다』 (파주: 김영사, 2013); 이븐 알렉산더 · 프톨레미 톰킨스, *The Map of Heaven*, 이진 옮김,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 (파주: 김영사, 2016) 참조.
- 20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62-66쪽 참조.
- 2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화경』, 272쪽.
- 22 육심과 육체는 “Physical Mind”, “Physical Body”, 생심과 영체는 “Spirit Mind”, “Spirit Body”로 번역된다. The Holy Spirit Association for the Unification of World Christianity, Op. cit., pp. 47-48.
- 23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65쪽.
- 24 위의 책, 66쪽.
- 25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171쪽.
- 26 위의 책, 173쪽.
- 27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4세기 유행한 영지주의(靈智主義)는 부패한 물질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로 나누어 육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인 호프, *The Secret Language of the Soul*, 유기천 옮김, 『영혼의 비밀』 (서울: 문학동네, 2002), 46쪽 참조.
- 28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67-68쪽.
- 2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화경』, 1572-1573쪽.
- 30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66쪽.
- 3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 증보판, 719쪽, 1097쪽.
- 3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64쪽; The Holy Spirit Association for the Unification of World Christianity, Op. cit., p. 46.
- 33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부모경』, 1451쪽.
- 3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화경』, 333쪽.
- 35 김경재, 앞의 책, 72-75쪽 참조.
- 3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187쪽.
- 37 위의 책, 185쪽.
- 38 위의 책, 182쪽.

- 39 위의 책, 183쪽.
- 40 위의 책, 186쪽.
- 41 위의 책, 187쪽.
- 42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편, 『한국가톨릭대사전』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606쪽.
- 43 가스펠서브 편,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110쪽. 소천이란 한자에서 파생되는 어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개신교 일부 교단은 소천 용어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로 정확하게 표현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 위의 책, 850쪽 참조.
- 4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사편찬위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예법과 의례: 전통』 (서울: 성화출판사, 1997), 135쪽.
- 45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185쪽.
- 4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사편찬위원회, 『통일교회 실록』 (서울: 성화출판사, 2007), 46 쪽;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사편찬위원회, 『참부모님 생애와 섭리 2』 (서울: 성화출판사, 2009), 378-379쪽.
- 47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139권 (서울: 성화출판사, 1991), 216쪽.
- 48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 증보판, 1210쪽.
- 49 위의 책, 1208쪽.
- 50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196권 (서울: 성화출판사, 1993), 271쪽.
- 5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사편찬위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예법과 의례: 전통』, 143-145쪽 참조.
- 52 EBS <데스> 제작팀, 『죽음』 (서울: 책담(한솔수북), 2014), 85-89쪽.
- 53 통일세계 편집실, 「뉴스 포커스: 1호 성화식(聖和式)의 축복 속에 하늘 길을 개척한 김상철 총장」, 『통일세계』 통권 486호 (서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2011), 46-48쪽.
- 54 김상철, 「다윗의 사명 받고 해외 선교 일선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역사편찬위원회 편, 『증언: 신앙수기 제3집』 (서울: 성화사, 1986), 7-24쪽 참조.
- 55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파주: 김영사, 2009), 59쪽.
- 56 위의 책, 60-61쪽.
- 57 위의 책, 61-63쪽.
- 58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 증보판, 1210쪽.
- 59 개신교의 성화(聖化)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차이는 다음을 참조. 멜빈 디이터 외, *Five Views on Sanctification*, 김원주 옮김, 『성화에 대한 다섯가지 견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2).
- 60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8권 (서울: 성화출판사, 1985), 329쪽.
- 6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성화학생의 길』 (서울: 성화출판사, 1998) 참조.
- 6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 증보판, 1445쪽.

63 위의 책, 376쪽.

6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화경』, 511쪽.

65 정재걸, 앞의 책, 107쪽.